

‘부주장’ 이민기의 특별한 인연, 광주FC 힘 보탠다

그룹 노라조 멤버 조빈과 친분
지난 19일 전북전서 축하 공연
다음 달 말엔 응원가 발매 예정
구단·서포터즈 위해 각각 헌정
의료기기 전문 기업도 한마음



창단 첫 아시아 무대에 도전하는 광주FC의 부주장 이민기의 특별한 인연이 구단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그룹 노라조의 멤버 조빈은 축하 공연에 응원이 발매까지 약속했고, 한성호 ㈜아디포랩스 대표이사는 선수단에 의료용 고주파 온열기를 쾌적했다.

노라조는 지난 19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광주FC와 전북현대모터스의 하나은행 K리그1 13라운드 맞대결에 앞서 축하 공연을 진행했다. 노라조는 이날 축하 공연에서 ‘슈퍼맨’과 ‘사이드’ 등 히트곡을 열창하며 승리의 기운을 전달했다.

비록 광주는 이날 전북에 0-3으로 완패했으나 노라조는 팬들을 위해 더 큰 선물을 약속했다.

현재 광주FC와 지지자연합회 빛고을에 각각 헌정하는 노래가 이미 작사와 작곡이 마무리된 상태다. 5월 말 음원 녹음에 참여할 팬들을 모집한 뒤 최종 작업을 거쳐 6월 말 발매가 이뤄질 예정이다.

광주FC와 서포터즈가 함께 응원가를 작업하게 된 데는 조빈과 이민기와와 개인적인 인연이 출발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FC 이민기(왼쪽)와 그룹 노라조 멤버 조빈이 최근 응원가 제작과 축하 공연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기투합하고 있다. 이민기 제공

졌다. 이민기의 응원이 헌정 제안에 조빈이 화답했고, 구단 사무처도 적극 소통에 나서며 준비를 도왔다.

이민기는 전남일보와 인터뷰에서 “조빈 형님이 2022년 정도부터 광주 축구에 관심이 워낙 많으셨다. 저랑 친분이 있다 보니 경기를 챙겨보다 자연스럽게 광주 축구에 빠지셨다”며 “응원가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식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부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빈 형님이 광주 축구에 완전히 빠지셔서 정말 우리 팀을 좋아해 주시고 중계도 다 챙겨보신다”며 “광주 색깔과 잘 맞는 응원가를 제작해 주신다고 해서 기대가 크다. 흔쾌히 부탁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조빈 역시 광주FC를 향한 애정을 적극 드러냈다.

조빈은 “(이)민기와 인연으로 광주FC와 인연도 시작됐다.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 응원하게 되면서 최신 응원가도 고민하게 됐다”며 “빛고을 서포터즈들과 팬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선물하려고 열심히 작업 중이다”고 말했다.

또 “한 곡은 광주FC를 위한 노래고 한 곡은 더우나 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응원을 보내는 빛고을 팬들에 선물하는 노래다”며 “조금만 기다리시면 같이 힘차게 부를 수 있는 응원가가 생긴다. 이 응원가가 울려 퍼지면 광주FC가 K리그와 아시아 무대를 모두 씩씩하게 이빨 날카로운 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룹 노라조가 지난 19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광주FC와 전북현대모터스의 하나은행 K리그1 2024 13라운드 맞대결에 앞서 축하 공연을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노라조의 응원가가 발매되면 광주축구전용구장과 광주월드컵경기장에는 더 풍성한 멜로디가 울려 퍼질 전망이다. 광주FC는 지난 2016년 가수 김정민이 헌정한 ‘승리의 함성’과 함께 탄탄한 응원가 라인업을 갖추게 됐다.

응원뿐만 아니라 선수단 컨디션 관리에서도 이민기의 인연이 힘을 보탤다. 광주FC는 지난 15일 울산HDFC와 8라운드 순연 경기에 앞서 ㈜아디포랩스와 후원 협약을 맺었는데, 한성호 대표이사 역시 이민기와 조빈의 지인이다.

한 대표이사는 이날 협약을 통해 선수단의 신체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의료용 고주파 온열기 ‘REMISSION 1°C’를 쾌적했다.

REMISSION 1°C는 신체에 0.46Mhz

의 고주파 전류를 직접 전달해 면역력과 통증 완화에 효과를 주는 장비다.

이민기는 “시즌 초반부터 부상으로 이탈하며 팀에 미안한 마음이 컸는데 지인들이 구단에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다”며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빨리 건강을 회복해 여름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조빈 형님과 한성호 대표님의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 모든 것이 저희 팀이 좋은 축구를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며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더 발전하기 위해 노력할 테니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광양여고 홍서운, 한국 여자 축구 국대 발탁

6월 미국 원정 친선경기 2연전

광양여고 미드필더 홍서운이 생애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다는 영광을 누렸다. 홍서운은 콜린 벨호에 승선해 다음 달 미국 콜로라도와 미네소타에서 열리는 원정 친선경기 2연전을 소화한다.

대한축구협회는 6월 미국 원정 친선경기에 출전할 한국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 명단을 지난 20일 발표했다. 이번 국가대표팀 명단에는 홍서운이 15세 319일의 나이로 발탁돼 지소연(시애틀 레인 FC·2006년 15세 217일)과 권다은(울산현대고·2023년 15세 309일)에 이어 세 번째 최연소 발탁 기록을 수립했다.

또 2018 FIFA U-17 여자 월드컵 우루과이에 출전했던 박로영(경주한수원 WFC)이 최초 발탁됐고 지소연(시애틀

레인 FC)과 김혜리(인천현대제철), 장슬기(경주한수원 WFC) 등 주축 선수들 역시 변함없이 이름을 올렸다.

이정은(화천 KSPO 여자축구단)은 지난 2017년 EAFF E-1 풋볼 챔피언십 이후 7년 만에 태극마크를 달았다. 지난달 필리핀과 친선경기 2연전 명단에서는 제외됐던 김경희(수원FC위민)와 김진희(경주한수원 WFC), 홍혜지(인천현대제철)도 다시 소집됐다.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은 다음 달 미국과 친선경기 2연전을 치른다. 오는 27일 인천국제공항에 소집돼 출국한 뒤 다음 달 2일 오전 6시(한국 시간) 콜로라도 커머스시티 디스 스포팅 굿즈 파크에서 1차전을 치른 뒤 5일 오전 9시 미네소타 세인트폴 알리안츠 필드에서 2차전을 치른다. 한규빈 기자

탐솔라 여자검도팀, 회장배 단체전 3위 입상

탐솔라 여자검도팀이 제9회 회장배 전국실업검도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3위를 차지했다. 박세연은 개인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이번 대회 광주 검도의 선전에 힘을 보탤다.

탐솔라는 지난 18-20일 경기 시흥 경기도검도수련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 단체전 8장에서 사이닝을 1-0으로 꺾은 뒤 준결승에서 김해시체육회에 1-2로 석패하며 공동 3위로 마쳤다.

탐솔라 박세연은 개인전 8장에서 배지

원(부산시체육회)을 1-0으로 제압한 뒤 준결승에서 박지훈(김해시체육회)을 2-0으로 완파했으나 결승에서 이예진(부산시체육회)에게 0-1로 석패하며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오상은 탐솔라 여자검도팀 감독은 “그 동안 선수들이 열심히 훈련하며 얻은 값진 성과다”며 “오는 10월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규빈 기자

동강대 투수 김유현, 대학 올스타 선정

내달6일 고교·대학 올스타전 출전 빠른 직구·안정된 제구력 갖춰 졸업생 정영웅도 외야수로 뽑혀

동강대 야구부 투수 김유현(2년)이 대학 올스타에 뽑혔다.

김유현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와 한화이글스 주최로 오는 6월6일 대전에서 열리는 ‘제2회 한화이글스배 고교·대학 올스타전’에 출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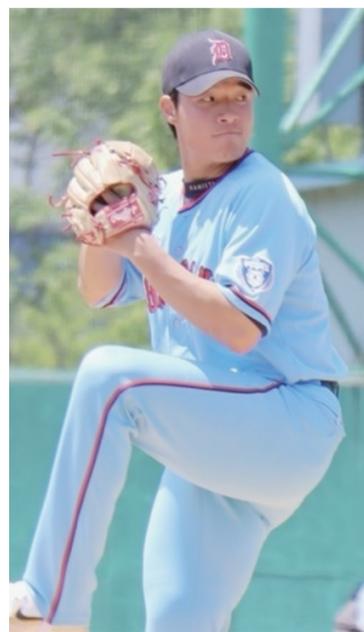
김유현은 KBO 10개 구단 스카우트가 선발한 고교, 대학팀 각각 24명(투수 10·포수 3·내야수 6·외야수 5명)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김유현은 광주 서석초·동성중·고를 거쳐 지난해 동강대에 입학한 광주 토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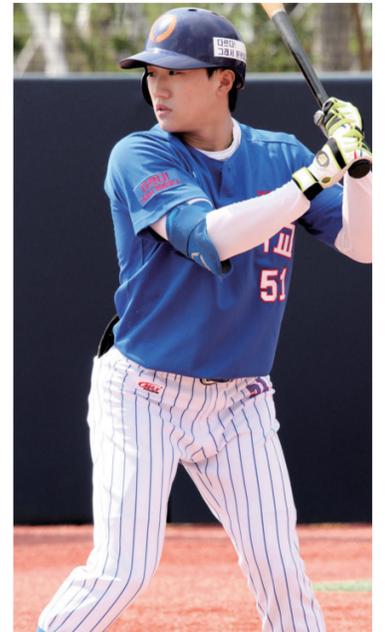
184cm·94kg의 체격을 바탕으로 한 빠른 직구가 강점이고, 제구력까지 갖춰 체인지업과 슬라이더, 커브 등의 변화구로 타자를 압도한다는 평가다.

김유현은 올 대학야구 U리그 6경기에 출전해 3승1패, 평균자책 1.35, 삼진 29개를 기록했다.

김유현은 “지난해 고교·대학 올스타전에 뽑힌 임주찬 선배의 모습을 경기장에서 직접 보며 부러워했는데 올해 제가 그 무대에 설 수 있게 돼 기분 무척 좋다”며 “올 U리그에서 생각보다 삼진을 많이 잡았다. 제구도 잘 돼서 타자를 쉽게 상대해



동강대 투수 김유현



원광대 외야수 정영웅

원광대 제공

전반적으로 안정감이 있는 것 같다. 욕심이 있다면 앞으로 전국대회 등 경기를 통해 구속을 올리고 싶다”고 말했다.

올해 프로 무대에 도전하는 김유현은 “어떤 경기에 뛰든 자만하지 않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야구 진짜 잘하는 선수로 기억되고 싶다”고 밝혔다.

동강대 야구부 졸업생인 정영웅(2018학번·원광대 4년)도 올스타전 외야수로 출전한다.

화정초, 무등중, 광주일고, 동강대를 거쳐 원광대에서 활약 중인 정영웅은 원광대 주전 중견수로 테이블세터를 책임지며 올시즌 올 시즌 9경기에서 타율 0.400(25타수 10안타)에 6도루 7타점 6득점을 생산했다.

또 출루율이 0.545, 장타율이 0.560에 육박해 OPS(출루율+장타율)는 1.105에 이른다.

최동환 기자